

# 국방력강화는 국사중의 국사

엄 경 철

매개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방력강화는 국사중의 국사이며 강력한 총대우에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도 평화도 있습니다.》

국방력강화가 국사중의 국사이라는것은 국방력강화가 국가사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국방력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하는 사업이라는것이다.

국방력강화가 국사중의 국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국방력강화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되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와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 조건에서 군사는 혁명의 승패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나선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고수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전진시키자면 총대를 중시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총대가 약해가지고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갈수 없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짓밟고 유린하는 조건에서 국방력강화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경제나 문화가 아무리 발전해도 총대가 약하면 제국주의의 노예가 된다는것은 력사가 실증해준 진리이다.

제국주의자들이 폭력을 마구 휘두르고 힘에 의하여 모든것이 좌지우지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강력한 국방력이 없이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수 없다. 국방력이 약하면 아무리 인구가 많고 령토가 크며 경제와 과학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제국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비위를 맞추지 않을수 없게 된다. 힘이 약하면 국가주권을 유린당하고 경제적락탈을 당하면서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데도 없다는것은 자위적국방력강화에 응당한 힘을 넣지 못한것으로 하여 제국주의와의 군사적대결에서 패한 이전 유고슬라비아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같은 일부 나라들의 교훈이 잘 말해주고있다.

자체의 강력한 국방력을 가져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고 승리한 혁명을 보위할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국방력강화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번영도 있다.

강력한 국방력은 오늘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조국의 운명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낼수 있는 결정적요인이다.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뜨우려는 미제를 비롯한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고 날로 더욱 우심하여지는 오늘날 나라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가장 선차적인 전략적과업으로 나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없애버리려는 미제와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무모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르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공장, 기업소에 대한 현지지도가 아니라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으며

독창적인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로 자위적인 국방력을 굳건히 다져나가기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운명의 생사기로에서 자주적인민, 자주적근위병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수호하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는것은 백두산위인들의 손길아래 자라난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이 있고 현대적인 국방공업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백발백중의 사격술과 무쇠같은 체력, 강한 규률성을 지닌 무적의 백두산강군으로 준비되었으며 우리의 국방공업은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낼수 있는 강위력한 국방공업으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국방력강화가 국사중의 국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국방력강화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기때문이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자체의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없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며 생존방식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의 침략과 략탈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갈수 없다.

제국주의의 군사적위협과 도전을 물리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가자면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수호의 필수적전제이며 사회발전, 혁명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만도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자주세력과 진보적인 나라들을 반대하는 수십차례의 크고작은 국부전쟁과 군사반란을 조작하였으며 무장간섭을 감행하였다. 지금도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발전해나가는 나라들을 눈에 둔 가시처럼 여기면서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고있다.

특히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해나가고있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군사적연습과 체재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강력한 국방력이 없이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담보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할수 없다.

국방력강화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평화적환경과 유리한 국제관계를 담보해준다.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강력한 국방력이 마련된 곳에서는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지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방해책동을 막아내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것을 다그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고 사회발전을 다그치자면 전쟁을 없애고 평화적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세계평화와 안전의 교살자인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평화를 보장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여 제국주의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는것이다.

군사에 모든것을 복종시켜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할 때만이 평화를 지켜낼수 있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평화를 보장하는것과 함께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을 행사하며 호혜의

원칙에서 국제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세계적범위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고있는 오늘의 조건에서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였다고 하여도 자체의 강력한 국방력이 없으면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행사할수 없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자체의 강력한 국방력이 없으면 대국들의 압력에 눌리우게 되고 풍부한 자원과 발전된 기술도 강탈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유리한 국제관계를 마련하며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호혜의 원칙에서 유무상통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추진시켜나가자면 군사를 앞세워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방력강화는 국방공업의 우선적발전을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전반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의 빠른 발전을 담보해준다.

국방공업과 중공업은 뿔수없이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국방공업은 중공업에 기초하고있으며 중공업의 발전을 떠나서는 국방공업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국방공업이 발전하면 이 부문의 최신과학기술이 중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보급되고 중공업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빨리 늘어나게 되며 이것은 중공업의 발전을 추동하게 된다.

국방공업의 발전은 중공업의 우선적발전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면 중공업의 우선적발전을 추동하게 되며 중공업의 우선적발전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업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된다.

이것은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국방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으며 그 어떤 적들도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국방력강화는 국사중의 국사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감으로써 나라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